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74)(10/15/2021)

제 2 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 10 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 3 절

마 22:21 - 이르되 가이사라 하는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라 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시 51:17 -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고전 10:23-24 - 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 나는 통회자복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위로를 원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고하게 만드는 그런 계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귀한 것이 다 거룩한 것도 아니고, 모든 향기롭고 달콤한 것이 다 선한 것도 아니며, 모든 소원이 다 순수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소중한 귀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은혜, 내 자신을 좀 더 기꺼이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환영합니다. 은혜를 주실 때에도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징계를 베푸실 때에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 어떤 공로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궁핍하고 헐벗은 존재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마 22:21), 당신의 것은 당신에게 돌리십시오. 즉,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는 감사를 돌리고,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해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위로와 평안, 깨달음, 은혜는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죄악되고 쉽게 변질되기 쉬운 마음을 가진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현상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왜곡될 수도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평안이 행여나 우리의 진심어린 참회의 마음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주님은 겸손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며 그 확신으로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죄의 확신과 그것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내적 위로와 평안이 죄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을 경감시키거나 죄의 문제를 소홀히 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상한 심령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시 51:17 -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것 속에서 나 자신의 중심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리고 나의 내면의 문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나 스스로 왜곡시키거나(예.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함), 혹은 나 자신이 왜곡되는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은혜를 받을 때에도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자유로 인해 방종에 빠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성공과 형통을 경험하고 각양의 복을 받을

때에도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 지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은 잘될 때나 잘 안될 때,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영적 충만을 누릴 때나 곤고할 때 등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때 은혜 그 자체를 나의 문제로 인해 손상시키지 않으며, 그 은혜로 인하여 자신이 잘못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고난으로 인해 영적으로 망가지지 않으며, 고난 속에 담긴 주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함으로 고난도 이겨낸다.

바울은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으로 인해 내가 왜곡되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었다. **고전 10:23-24 - 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캠프스는 고귀하다고 다 거룩한 것도 아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우상 제물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 과도 연결된다. 바울은 자신이 우상 제물에 대해 자유하다고 말했지만, 만약 그 제물을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혼란을 준다면 자신은 그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고전 8:13). 왜냐하면 자신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전 8:9 -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자기가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분별해야 함을 가르쳤다. 그 이유는, 아무리 영적인 자유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며,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것 역시 잘못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기에 복이며, 은혜이고, 선과 진리라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보이는 대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좋은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이 가하다 할지라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절제가 필요하다.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게 보이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거니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며 나 스스로가 변질되지 말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잘 분별하여 받아들이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자.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믿음의 중심을 굳게 지키며 외부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분별있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대선을 앞둔 한국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3.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중남미 지역 선교사님들(이철남(멕시코), 홍성진(페루아마존), 황윤일(페루))의 사역과 가정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